 미래소비자행동 Consumer Action for Future www.can.or.kr	보 도 자 료	
	보도일시	배포 시부터 보도 가능합니다.
	배포일시	2024년 5월 13일(월)
	담당부서	미래소비자행동 ☎ 02-706-1372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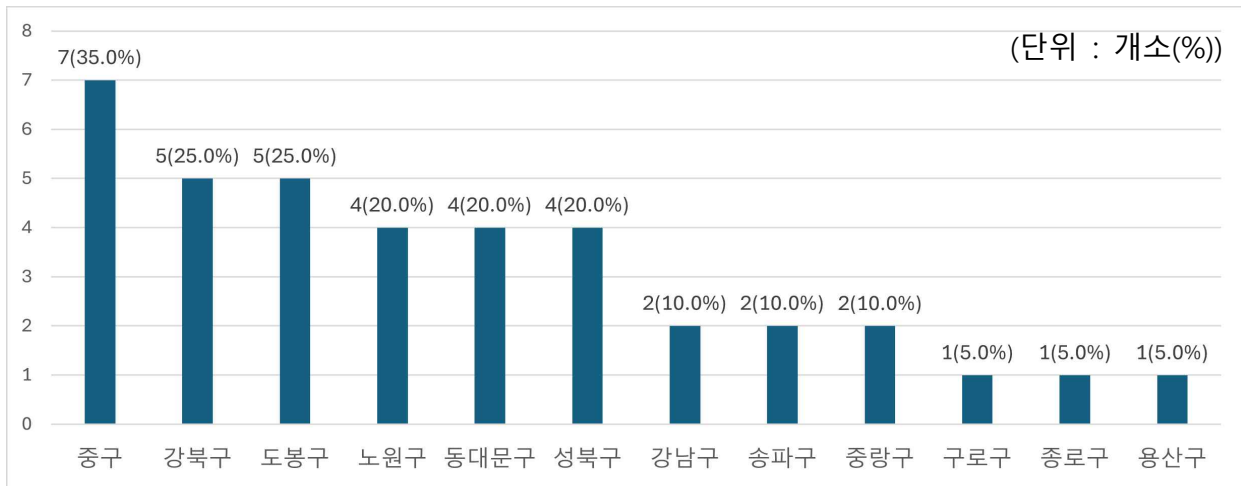
서울지역 마트·슈퍼 7.6%(38개소)에서 의약품 불법판매 확인 개봉 후 날개 판매,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 등 소비자 안전 위협

- 서울지역 마트·슈퍼 500곳 방문조사 결과 38개 업체(7.6%)에서 의약품 불법판매
- 의약품의 개봉 후 날개 판매(6개소),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(1개소)와 같은 위법행위로 인한 소비자 안전 우려
- 안전한 의약품사용을 위해 무허가 불법판매 업체에 대한 지도 단속과 소비자 주의 필요!

사단법인 미래소비자행동(상임대표 조운미)에서는 지난 4월 5일부터 4월 15일까지 10일간 서울지역 마트 및 슈퍼 500개소(25개 구 각 20개소)를 방문하여 의약품 판매 여부를 조사하였으며, 4월 17일부터 4월 24일까지 8일간 의약품 개봉판매 여부 등 기타 위법행위 여부에 대한 2차 조사를 하였다. 조사는 사전교육을 받은 조사원이 방문하여 의약품 판매 여부 확인 후 실제 판매 중인 의약품을 구매하였다.

■ 조사대상 500개소 가운데 38개소(7.6%)에서 의약품 불법판매 확인!

의약품 판매업소로 허가받지 않은 마트와 슈퍼 500곳을 조사한 결과 총 38개소(7.6%)에서 의약품 불법판매가 확인되었다. 구별로 살펴보면 서울지역 25개 구 가운데 12개 구에서 의약품 불법판매가 있었으며, 중구가 7개 업체로 가장 많았다.



[그림] 구별 의약품 불법판매 현황

■ 불법으로 판매하는 의약품으로 소화제 ‘까스활명수’가 가장 많았으며, 다음으로 ‘타이레놀’ 순으로 나타나

조사과정에서 구매한 의약품으로 소화제가 24개(41.4%)로 가장 많았으며, 다음으로 해열진통제 20개(34.5%), 감기약 13개(22.4%), 파스 1개(1.7%) 순으로 나타났다. 제품별로는 소화제인 ‘까스활명수’가 17개(29.3%)로 가장 많았으며, 다음으로 ‘타이레놀’이 13개(22.4%), ‘게보린’ 4개(6.9%), ‘판피린 큐’ 4개(6.9%) 순으로 나타났다.

[표] 허가장소외에서의 구매한 일반의약품 현황

(단위 : 개(%))

구분	계	일반의약품	건수
합계	58		
소화제	24(41.4%)	까스활명수	17(29.3%)
		웬스탈	2(3.5%)
		기타(베네치오에프, 베아제, 다이제스트, 스피자임, 베스타제포르테)	5(8.6%)
해열진통제	20(34.5%)	타이레놀	13(22.4%)
		게보린	4(6.9%)
		기타(타세놀, 스코펜, 암씨롱큐)	3(5.2%)
감기약	13(22.4%)	판피린 큐	4(6.9%)
		오메콜에프	3(5.2%)
		화이트벤	2(3.5%)
		기타(판콜S, 화콜, 래피콜콜드, 콘택골드)	4(6.9%)
파스	1(1.7%)	신신펠비낙	1(1.7%)

의약품은 매장 매대에 진열 판매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으며, 대부분 계산대 근처에 두고 의약품 구매가 가능한지 문의했을 때 제품을 꺼내주는 경우가 많았다. 이는 슈퍼에서의 의약품 판매가 불법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판매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. 또한, 조사과정에서 구매한 의약품 가운데는 사용기한이 지난 상품도 있었다. 즉, 의약품의 불법판매뿐만이 아니라 제대로 관리 되지 않은 채 소비자들에게 판매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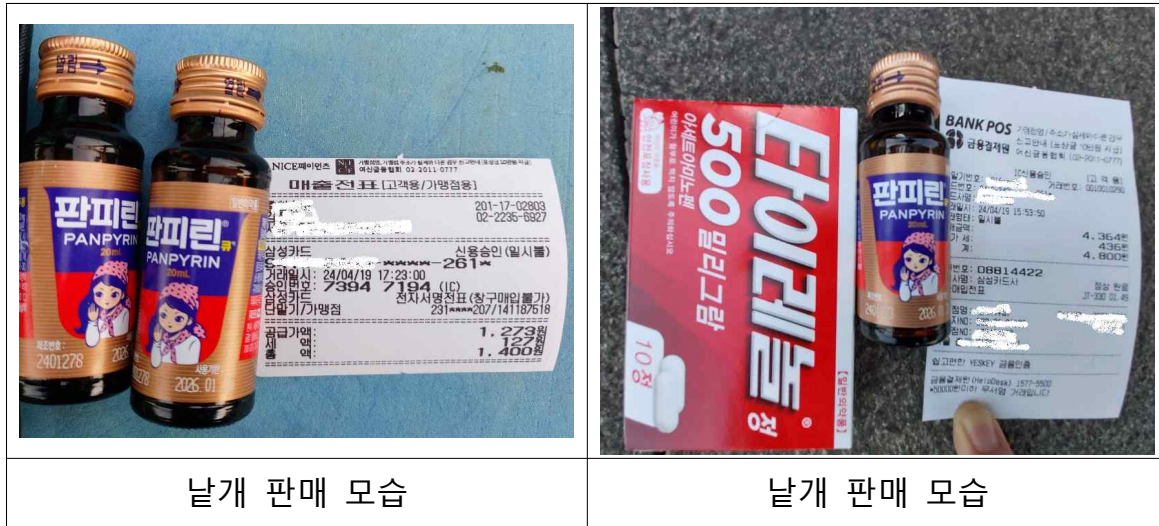
	
<p>가스활명수 판매모습</p>	<p>유통기한 경과 제품</p>

조사과정에서 구매한 의약품은 약국에서만 판매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이었다. 일반의약품은 안전상비의약품보다 약국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의약품이 주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.

■ 약사법에서 금지한 개봉 후 날개 판매 6개소 확인

의약품을 판매한 38개소 가운데 6개소(15.7%)에서 제품을 개봉하여 날개로 판매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. 알약 형태의 의약품의 경우 1알에 500원, 액상 형태인 판피린 큐의 경우 1병에 700원, 800원에 판매되고 있었다.

의약품의 개봉 판매는 의약품의 용도, 부작용, 효능 등 주요사항 확인할 수 없거나 제한되게 된다. 자칫 오남용 등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다.



날개 판매 모습

날개 판매 모습

■ 불법판매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·감독 필요

의약품의 경우 오남용 잘못된 복용으로 인하여 인체에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다. 이번 허가 외 장소에서의 의약품 불법판매현황을 조사한 결과 의약품이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을 뿐 아니라 의약품 개봉 후 날개 판매, 유통기한 지난 의약품 판매와 같은 위법행위까지 발견되었다. 즉, 의약품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채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이 크게 우려되고 있다. 소비자 안전을 위해 의약품 불법판매 행위에 대한 실태 파악과 주무부처 및 지자체 등에서의 지속적인 조사와 관리·감독이 필요한 시점이다.

■ 소비자 주의사항

- 일반의약품은 약국에서만 구매하세요.
- 의약품을 복용하거나 보관할 때는 사용설명서나 제품 용기에 표시된 지시사항을 꼭 지켜주세요.
- 의약품 지시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제품 개봉 후 날개로 구매하여 보관 및 복용을 해서는 안 됩니다.
- 약을 여러 종류 복용하면 약물 간에 상호작용으로 부작용 발생이 높습니다.
- 의약품 관련 사항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세요.
- 의약품 복용 후 위장장애, 발진, 발열 등 부작용이 있으면 즉시 투약을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.

사단법인 미래소비자행동